제 29 시의회 선거구
Jon Torodash (CV)

포레스트힐, 큐가든, 레고파크, 리치몬드힐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의회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 출마한 존 토로다시입니다. 직업 정치인에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나빠지고만 있는 뉴욕시의 현재 상황이 평범한 시민이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보인 저를 자극했습니다.

뉴욕시는 예산, 교육 시스템, 대중교통, 부동산, 공원, 복지 서비스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부재 아래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민간 부문에서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 계약 개혁, 조사 감독 증가 그리고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해 공적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균형을 이룬 교과 과정 , 우수한 교사, 학급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춘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표준 시험과 이미 실패한 차터 스쿨이라는 대안이 답이 아닙니다. 또한 뉴욕은 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하며 자원을 더 잘 할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역 개발 업체들에게 과거 불법 로비 활동과 저렴한 주거시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것입니다. 또 뉴욕시 유적 보전 위원회가 우리의 깊은 역사를 보존하기 여러 지역에 걸쳐 더 공정하게 유적지를 채택하고 뉴욕시 건축 사무국이 용도구역 위반을 단속하고 제반시설에 무리를 주는 정책을 멈추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시의회가 생활 임금 법안을 추진할 때 여기에 소규모 사업체가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데 쓰는 비용을 세금 감면으로 전액 보상하는 조항을 더해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아직 민감한 우리 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 웹사이트 jontorodash2013.com 에 가시면 제 아이디어를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근거해 온전히 독립적인 후보로 경선에 참가했습니다. 뉴욕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치적 부패와 무능력(특히 문제투성이인 신규 911 시스템)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청에 보내기 원하는 주민들을 통합하는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선거일에 시민의 미덕 당 후보 존 토로다시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